

발표문

김솔이, 이예진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 곳곳에 계신 활동가분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와 라인업을 갖춘 프로젝트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 민망함에 손사래를 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획과 섭외 모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기에 가능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기획단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현장 활동가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현장의 활동가가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활동가는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허오영숙, 한가은, 김혜정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인터뷰는 그 자체로 이주여성 인권운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의견이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길게는 몇십 년씩 이주여성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오신 운동가들의 대화를 '직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디서도 해볼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희는 '연구자 그 자체가 곧 도구'라는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이주여성인권운동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셨기에 할 수 있는 질문들로 가득 찼고, 이에 다른 사람이 진행했더라면 들을 수 없었을 깊이 있는 답변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인터뷰 진행자가 현장 활동가이기에 서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생략되는 맥락들이 많아, 저희로서는 글을 쓸 때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겪은 이런 고충은 그만큼 대화의 농도가 짙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활동을 종료하는 이 시점에야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기획단 프로젝트 역시 하나의 치열한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현장에서 하나같이 적은 인력, 노력과 역량에 비해 충분치 못한 보수, 많은 일로 활동가가 소진되는 문제를 어려움으로 토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현장에서 또렷이 날 서 있는 문제의식으로 가득한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그 솔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활동가들이 열의를 잃지 않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지를 질문하게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교육, 행정 업무로 쉴 틈 없던 선생님들께서 퇴근 후 야심한 밤과 주말 쉬는 시간을 반납하시면서까지 바쁘게 이 기획단 글 작업을 하셨던 이유 말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에서 본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흐름상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일 수 있었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매번 '활동가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운동의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화두일 것입니다. 이주여성 인권운동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많지 않은 이 시점에, 활동가들의 시행착오와 크고 작은 업적들, 현장의 고뇌가 담긴 본 기획단의 글이 이후 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이 운동을 멈추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연구자는 현장의 흙으로 손을 더럽힌다'는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이미 그러한 연구자라는 점을 상기했을 때,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의 흙으로 빚어진' 작업들의 가치도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프로젝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언젠가 본 센터의 크고 작은 업적들이 실린 글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글로만 배웠던 학문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임을 절절하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주민과 인권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그간 안락한 환경에서 뜬구름만 잡고 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발을 내딛는 초보 연구자인 저희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어떤 가치관과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단단한 기반을 다져준 경험이었습니다.

수차례의 회의와 인터뷰 과정에서 저희의 부족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던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한 여성학자의 말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의 머리와 마음에 수많은 균열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 계셔 그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관심을 가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획단에 합류한 저희를 활동가들의 치열한 고민이 오가는 대화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최종본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프로젝트 구성원 각자가 사적인 일정을 뒤로 미뤄가며 귀한 시간과 체력으로 만들어낸 최선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아직 수정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글로 인해 활동가들의 귀한 이야기들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획단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장 곳곳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활동가들의 땀과 노력이 어딘가 기록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줌의 사람들이 변화의 파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현장들에 충분한 관심과 인정이 주어지는 통로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